
기존 한국어 사전 편찬의 성과와 한계

— 또 하나의 한국어 대사전 개발을 위하여 —

홍재성 · 서울대학교 교수

사전은 인간의 가능한 모든 활동 영역에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정보 소통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선별·조직화한 내용을 담은 책의 한 종류이다. 사전은 기술대상이 되는 표제항의 성격과 표상된 정보의 영역과 내용, 정보 소통의 여러 측면과 양상에 따른 사전의 기능과 규모, 정보 표상 도구로서의 메타언어의 성격 등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양다기한 사전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사전이든 간에 특별한 부류의 확인 점에서 적어도 구조화된 정보의 총체로서의 텍스트인 동시에 생산·소비의 유통 과정을 갖는 제조물로서의 양면을 지니며, 모든 사전은 본질적으로 기호적(semiotic) 대상이자 문화적(cultural) 대상이다.

백과사전과 더불어 전통적 양대 하위 사전 유형의 하나인 언어 사전 역시 메타 언어적 대상이기에 앞서 특이한 유형의 책으로 중요한 문화적 대상이다. 사전의 구성은 언어학적 원칙에만 의거할 수 없고 고유의 사전학적 원칙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전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와 평가는 언어학적 접근으로만 한정될 수 없고 사전학적 접근이 필수적인데, 그것은 또한 기호학/텍스트학/문화학적 시야를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방 이후의 현대 한국어 사전 편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평

가 역시 이와 같은 포괄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지한 학술적 작업은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것이므로 전문적 사전학자들의 가까운 후일의 과업으로 미루어 두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근래의 잘 알려진, 몇몇의 이른바 한국어 대사전들이 보여주는 언어사전 편찬 활동에 대한 평소 우리의 소회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실 그 소회라는 것도 이미 기회있을 때마다 대체로 다 피력해 온 것이고, 또한 다른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17년 간에 걸친 노력의 결정체이자 한국어 사전편찬계의 가장 최근 성과로 볼 수 있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2009)¹⁾을 반갑게 살펴보면서, 그 소회를 다시 한 번 되풀이해 강조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져 한 가지 제안을 해보려는 것이다.

단일어 사전으로서의 한국어 사전 편찬의 경험은, 동서양을 망라한 세계 사전 편찬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짧다고 할 수밖에 없다.²⁾ 또 한편, 정보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전자 정보소통 시대의 진입 결과, 한국어에서의 전통적 대규모 인쇄사전 출판이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어 사전 편찬 활동은 근래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는 전반적 평가가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은 한글학회편 큰사전(1957)과 같은 한국어 사전사에 획을 긋는 성과가 있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1990년대 이후 몇 가지 새 한국어 사전의 발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⁴⁾ 지난 20여 년 간은, 별도의 깊이 있는 학술

1)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편찬 보고회 발표자료(2008)

2) Hausmann, F. J. *et al.*(1989), 이병근(2000), 박형익(2004), 허제영(2009).

3) 김종철(2005).

4) 이 시기에는 김민수 편 『국어대사전』(금성사, 1992/1996):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어문각, 1992): 『연세 한국어사전』(두산동아, 1998):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및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같이 중요한 일반 한국어 단일어 사전이 편찬되었다. 이외에도 박용수편 『겨레말 갈래 큰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홍윤표 외

적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분명 한국어 사전사의 개화기 내지는 도약의 시기로 여겨진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사전학/사전편찬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의 확산과 심화가 그 제도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기존 사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 다양한 사전 편찬 방책의 대두, 사전 편찬 지향적 한국어 어휘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병행하여 전산 사전편찬론의 이론과 방법 또한 도입되기 시작하는 등 새로운 사전 편찬 환경이 조성되면서 무엇보다 '90년대 이전 사전들에 비해 일반 언어 사전으로서 개선된, 차별화된, 또는 새로운 유형의 한국어 사전들의 출간이 이 시기를 특징짓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일반 한국어 사전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어휘 요소들의 언어적 속성의 보다 정확한 사전적 기술이나⁵⁾ 표상정보 유형의 확대의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고⁶⁾, 사전편찬작업의 전

편 『17세기 국어사전』(태학사, 1995): 홍재성·김현권 외 편: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사전』(두산동아, 1997): 김윤식·최동호 편 『한국 현대소설 소설어사전』(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서상규 외 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문화관광부, 2006). 김하수 외 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21세기 세종 현대 한국어 전자사전』(국립국어원, 2007),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날말, 2009) 등등의 다양한 전문·특수 한국어 사전들이 발간되어 한국어 사전 편찬계의 지형을 다채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또한 현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이 큰 규모의 현대 한국어 사전을 준비 중에 있고, 남·북한 한국어 통합 대사전 편찬이 진행 중이다(겨레말 큰사전 국제 학술회의 발표자료, 2007). 한국어 단일어 사전은 아니지만, 한국 불어불문학회에서 펴낸 『새한불사전』(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8)은 국내외 기성 사전 자료에 의거하지 않고, 사전학 및 한불 어휘 대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거시구조 구성에서 미시구조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새롭게 작성된 실험적 이개어 사전인데, 특히 한국어학 전문 인력의 동참으로 완성된 한·외국어 이개어 사전의 사례로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홍재성·박만규, 2007).

- 5) 사전 기술 정보의 정확성은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학술적 타당성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6) 특히 술어적 성격의 어휘요소들에 대해 문형 정보나 선택 제약 정보를 폭넓게 기술하기 시작한 점이나, 활용 제약 및 어휘 결합 제약의 양상을 정밀하게 포착하여 사전정보화한 점, 연어나 관련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어휘·의미관계 정보를 기록한 점, 또는 제한적이거나 최초 출현형 정보표시를 시도한 점 등에서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과정에 걸쳐 전산 정보 처리 기술의 활용을 시도하고 코퍼스에 기반한 사전 편찬 자료의 구축과 사전 텍스트의 작성을 목표로 하여 사전 편찬 활동의 면모를 개신한 점 등은 한국어 사전 편사적 관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에 성취된 한국어 사전편찬계의 결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채워지지 않은 커다란 공백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단일어 언어 사전으로서의 현대 일반 한국어 대사전의 부재이다.⁷⁾

자국어(또는 한 언어공동체 고유 언어) 대사전의 편찬은 자국어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깊은 자각의 발로이자, 자국어에 대한 다양한 학문 연구를 통합한 고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며, 당대의 문화적 역량을 -이제는 기술적 역량까지- 가늠할 수 있는 학술적 대상의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이상 전개된 사전학적/사전편찬론적 탐구를 더욱 진전시키면서 또 하나의 한국어 대사전을 개발하는 것이 한국어 사회·문화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과업이라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10년 이상씩 각국의 노력을 들여 편찬된 대사전이 한두 종이 아닌데 -더구나 이들 사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수는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여전히 새로운 대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의의를 운위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언어가 본질적으로 시간적 차원에서 부단히 변화하는 유동적 대상이어서 그것을 표상하는 언어 사전의 텍스트란 본질적으로 미완의 텍스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사전 텍스트란, 그 작성의 매 순간, 매 단계에서 선별이 필수적이어서, 최종적 완결의 시점이 없이 다시 쓰여 져야 하는 개방적 텍스트이기 때문만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연세 한국어 사전을 제외하면, 이른바 한국어 대사전

7) 관점에 따라서는 남·북한 통합 한국어 사전이나 한국어 역사사전을 거론할 수도 있다. 이 두 유형의 사전이 한국어 사전 편찬계의 소망임에도 틀림이 없다. 또한 더욱 개선된 한국어 학습사전이나, 동사사전, 형용사사전, 술어명사 사전 또는 명사구 사전, 의존명사사전 등등 선별형 전문 한국어 사전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모두 언어 사전과 일반 백과사전을 절충·통합한 혼합형 사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합형 사전이 일반 사전 독자들 사이에서 그 나름대로 활용되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혼합형 사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⁸⁾ 한국어 대사전 편찬 영역에서 언어 사전/백과사전의 절충형 사전이 지나치게 지배적 지위를 누리면서 재생산되어 온,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지속이 문제인 것이다. 일반 사전 이용자들의 타성적인 요구, 아마도 대사전이라면 응당 대규모 거시 구조에 풍부한 백과사전적 정보를 담은 사전이어야 한다는 통념 때문에 『연세 한국어사전』이 참신하고 사전학적으로 의미있는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판물로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⁹⁾, 대사전 편찬진은 상업적 실패를 면하기 위해 부득이 혼합형 사전의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의 또 한 중요한 측면은 이들 절충형 사전의 언어 사전 부분 기술이 현금 한국의 사전학적/사전편찬론적 성찰의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한계와 미비점을 갖고 있다는 데에 있다.⁹⁾ 그간 경쟁적 중복 투자를 과감히 자제하고 대사전 개발을 위한 지적, 재정적, 시간적 투입의 상당몫을 점유하는 백과사전적 구성에 할애된 노력을 언어 사전 부분에 전적으로 경주하였다더라면 현재보다 훨씬 개선되고 수준 높은 언어 사전 편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¹⁰⁾

8) 언어 사전과 백과사전의 혼합형은 오래된 전통의 사전 유형이다. 프랑스의 경우, 전형적 혼합형 사전인 Le Petit Larousse Illustré는 성경 다음으로 소장 가구수가 많다는 조사보고가 있는데, 1906년 초판이 간행된 이래 출판물로서의 획기적 성공을 거듭해온 단권의 중규모 사전이다(홍재성 2008).

9) 이 글은 대체적이고 전반적 논의에 머무는 것이기에 이 점과 관련하여 개별적 사전의 구체적 사례는 인용하지 않겠다. 그 간 새국어생활이나 한국 사전학□등의 출판물, 또는 10여 차례 계속되어 온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같은 연구 발표 모임을 통해 적절한 지적이나 제안이 많이 제시되었다.

10) 백과사전 부분 역시 여러 대사전에 대해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한두 가지 단편적 언급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회귀 동·식물명이나 외국의 소소한 지명(협곡, 하천)등등에 대해서까지

또 하나의 한국어 대사전을 구상한다면, 그것은 되풀이해서 지적하거나, 거시 구조를 과감히 축소시켜 일반 한국어 어휘로 한정하고, 한마디로 그간에 편찬된 한국어 대사전의 긍정적인 성취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현대 한국어 사용자들이 구사하는 어휘 지식을 더욱 정확하고 상세하고 풍부하게 표상하는 언어 사전일 것이다.¹¹⁾

이와 같은 사전의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 원칙이나 설계안 구상은 별도의 기회에 논의하기로 미루어 두고 이 자리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일반적 사항만을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거시 구조의 규모는, 좀더 정밀한 계산과 선별 작업에 기초해야 하겠으나, 잠정적으로 10만 정도의 표제항, 또는 그 미만의 규모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¹²⁾

정확한 백과사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나치다 싶은 노력을 들이면서도 밥이나 김치, 떡 또는 한옥, 한복 등 한국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대상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적 기술이 전무하거나 매우 소홀히 처리했다.

ii) 언어 연구 관련 전문어 기술이 발전된 언어학 연구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언어명,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언어명이나 언어 유형론적 연구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언어명의 표제어화가 충실하지 못하고, 그 기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매우 빈약하다.

11) 실은 언어 사전의 수록 정보가 엄격히 언어 정보에만 한정되기는 어렵다. 특히 지시적 성격의 표제항의 뜻풀이는 명시적인 언어학적 의미의 표상이 아니고 표제항 어휘의 의미 기술인 동시에 지시체에 대한 기술로도 해석되는 이중성을 갖기 때문에 언어 사전/백과사전의 준별은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 언어 사전이라는 지칭은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한계는 받아들이면서 사용된다. 또한 이 글은 전자판 사전의 구축 문제는 논외로 새로운 인쇄사전의 개발에 국한하는 제한적·편향적 논의이다.

12) 이 수치는, 주표제항/부표제항을 구별하는 위계적 거시구조의 선택이나, 동형어/다의어 구분의 방책, 변이형의 처리 방책, 또는 생산적 파생어/합성어의 선별 등등 변수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다. 문자 사용의 역사가 오래된 세계 주요 언어의 경우(한국어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평균적 일반 어휘 규모가 10만 정도라는 학계의 추정과 더불어(다양한 전문어를 모두 포괄하게 되면 영어 같은 언어는 그 어휘 규모가 최대 300만 단어를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제시된 바도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지고 애용되는 프랑스어 사전의 하나인 통칭 Petit Robert(홍제성 외 1986)의 표제항 규모는 6만 어휘 미만이고(한국어 사전편찬계의 기준으로 보자면 대사전이 아닌 단권의

(2) 바람직한 한국어 대사전 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작업의 하나는, 표제항 선별을 한정하는 대신, 핵심 어휘의 기술을 대폭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다¹³⁾나 서로¹⁴⁾와 같은 한국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법적 기능요소는 물론, 높은 빈도의 주요 술어 명사(질문, 약속, 반대 등등)¹⁵⁾ 시간명사(전, 후, 다음 등등), 또는

증사전이지만 표상된 공식적/통시적 정보의 풍부함이나 뜻풀이의 정확성은 빼어난 것이다), 현대 프랑스어 사전사상 뛰어난 성취라 볼 수 있는 16권 분량의 언어대사전인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TLF의 표제어가 10만 미만인 점(하영동 2004) 등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제안을 해 보는 것이다.

13) -이다는 그 정체성의 문제나 범주적 지위에 대해 한국어학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요소이지만, 언어사전에서의 어휘적 기술은 가다/보다 등과 같은 중요한 술어적 요소에 비해 너무나 불충분하다. 남길임(2003)이나, 홍재성(2008), 홍재성·박진호(2009) 등에서의 제안을 참고로 하여, 한국어 대사전에서 아니다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나 TLF에서의 대응되는 be나 être 항목의 처리를 참조해 보면 이러한 주장에 공감할 것임이 여겨진다. 사실은, 우리의 주장대로 -이다 항목을 새롭게 전개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언어학/사전학적 근거에 입각한 공식적 기술의 면에서- OED나 TLF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14) 우리는 서로 항목의 보완을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15) 술어명사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고유의 논항을 지배하는 술어적 요소이다. 술어명사를 핵어로 하는 명사구 내에서 논항의 문법적 실현 양상과 논항의 선택제약, 술어명사가 주어/목적어 또는 자격보어 위치에서 구성하는 기능동사구문의 어휘적·통사적 속성, 술어명사를 적정하게 수식하는 형용사 등등은 모두 어휘 특정적 언어적 속성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언어대사전에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술어명사와 기능동사/수식어 형용사의 결합은 대부분 언어적 구성을 이루므로 더욱 사전적 표상이 필수적이다. 질문을 예로 들어 보면, 대규모 코퍼스를 기반으로 항목을 기술하였다고 내세우는 대사전들의 처리가 대체로 불충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 질문받는 사람, 질문하는 내용을 논항으로 요구하는 3항 술어로 특징지을 수 있겠는데, 질문을 주어, 목적어, 자격보어 위치에 놓고 질문하는 상황을 각각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어 화자는 언어적 성격의 다양한 어휘 결합을 구사하는데, 상세한 분석이 일부 예를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질문을 (하다 +드리다 +던지다 +퍼붓다 +쏟아놓다...)

질문을 받다

질문이 (나오다 +쏟아지다 +오가다...)

사람⁶)이나 밥⁷)과 같은 역시 높은 빈도의 주요 구상명사 등의 항목은, 대부분의 기존 대사전에서의 처리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년대 이후 대사전은 동사/형용사 표제

질문에 (답하다 +대답하다)

질문이 (있다 +없다)

질문과 결합하는 적정한 또는 빈도 높은 수식어 형용사로는 좋은/날카로운/난처한/어려운/영똥한 등등이 있을 터이고 명사-을 묻는 질문과 같은 구성도 빈번히 사용된다(*질문을 묻다는 불가능하다). 또한 기능동사 구문 질문을 하다에서 질문의 제3논항은 다음과 같이 명사구나 절성분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 i) 나는 그에게 표제항 선별의 기준에 (대해 +관해) 질문을 하였다.
- ii) 나는 그에게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질문을 하려고 했다.
- iii) 나는 그에게 표제항 선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E+를) 질문을 하였다.
- iv) 나는 그에게 표제항 선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나-(고+는) 질문을 하였다.

질문을 수량화하여 표현하려면 가치나 개를 종분류사 *sortal classifier*로 사용할 수 있고 수사 하나와의 공기가 가능하다.

- v) 나는 그에게 물을 세 (가지+개)—(의+E) 질문을 준비했었다.
- vi)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사전 기술에 반영할 이와 같은 질문의 언어적 행태는 1,000만 어절 정도의 코퍼스(21세기 세종계획 최종결과물, 2007)에서 모두 확인될 수 있다.

16) 한국어 대사전에서의 사람항목과 OED의 *man*항목, *Petit Robert*의 *homme* 항목을 대조해 보라.

17)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중 하나를 지칭하는 밝은 주어, 목적어, 사격보어 위치에 분포하여 다양한 동사/형용사와 공기하면서 많은 언어적 구성을 이룬다.

밥을 안치다/짓다, 밥이 설다/설익다/눅다/타다, 밥이 되다/질다, 밥이 다 되다/밥을 뜨다/푸다, 밥을 (물+국)-에 말아먹다, 밥을 (볶아먹다+비벼 먹다..), 밥이 쉬다, 밥에 (쌀+콩)-을 두다.

우리는 명사와 서술어 결합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표상하기 위해서는 의미·텍스트 대응 이론 어휘부인 결합·설명 사전 기술의 중심이 되는 어휘함수 개념을 응용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론적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Mel'čuk et al. 1984-1999; Mel'čuk, Clas et Polguère 1995).

항의 기술에 많은 개선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언어 대사전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어 체계적이 보완이 필요하다.¹⁸⁾

(4) 기존 사전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한국어 대사전을 구축하려면 (2) - (3)의 제안에 따른 철저한 편찬 작업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어휘 정보- 발음 표시에서부터 다의 구분 및 뜻풀이를 통한 그 구별되는 의미의 기술은 물론, 화용 정보에 이르기까지 기간 사전의 부정확성, 공백, 일관성/통일성의 미비 등등을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통시적 정보의 가능한 한 충실한 기록 -최소한 최초 출현형과 그 출처, 변화된 새로운 의미의 출현 시기 등- 역시 대사전 독자들의 해묵은 소망이다.

(5) 마지막으로 덧붙여 거론하고 싶은 점은 용례 선별의 문제이다. 용례는 출처에 따라 자연 용례(인용예)와 인공 용례(작성예)로 나눌 수 있고, 단어에서 구(예구)나 문장(예문), 문장의 단편이나 문장의 연쇄, 대화의 단편에 이르기까지 그 언어 표현상의 지위가 여러 가지이고, 그 기능 역시 다양하다. 용례는 미시구조 내에 명시적으로 기록되는 주요 정보(뜻풀이, 문형, 활용 제약, 여타 요소와의 결합/공기 양상 등등)를 예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지만, 뜻풀이를 보완하거나 표제항의 지시물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보를 보충할 수도 있고, 명시적 예시 기능을 보완해서 부수

18) 이 점에 대해서는 80년대 중반이후 구체적으로 다양한 제안이 있어 왔으나 최근까지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i) ㄱ-ㄴ, ii) ㄱ-ㄷ에서와 같은 절논항의 분포나, iii) ㄱ-ㄷ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제한적 문형 대응 관계 -논항 축소/증가, 격조사 교체, 이에 따른 명사 분포의 차이 등등의 요인에 의해 구성되는-를 비롯하여 아직도 체계적·명시적으로 기술되지 못한 문법 정보의 측면들이 있다.

- i) ㄱ. 그는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왔다.
 ㄴ. 나는 그가 나가려는 것을 (붙들었다+붙잡았다+막았다)
- ii) ㄱ. 그는 아프간에 추가 파병을 하는 (것을+데에) 반대했다.
 ㄴ. 그는 결국 담배를 완전히 끊는 데에 성공했다.
 ㄷ. 그는 그 여자와 헤어지려고 (결심했다+마음 먹었다).
- iii) ㄱ. (지붕에서 물이+지붕이) 새다.
 ㄴ. (빗으로 머리를+빗을) 빗다.
 ㄷ. 보자기-(에+로) 짐을 싸다/여행 준비로 짐을 싸다.

적 문형 정보나 빈번한 단어 결합 양상 등을 암시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용례는 또한 무엇보다 선별된 요소가 실제로 사용되는 해당 언어의 어휘요소임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로 기능한다.

사전 텍스트 작성을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표제항에서 표상 정보의 유형과 개별적 정보에 이르기까지-, 용례의 경우도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선별·수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용례는 사전의 유형과 기능, 그리고 사전 내에서는 표제항의 언어적 지위 -접사/어미/조사/한정사인가 또는 명사/동사/형용사/부사인가 등등-에 따라 출처와 유형이 선택되고,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선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간 사전에 선별·기록된 용례는 보충·개선·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용례 선별에 활용될 수 있는 언어학적/사전학적 원칙과 방법론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90년대 이후의 사전편찬 환경에서는 대규모 코퍼스로부터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 용례 추출과 가공이 가능하고, 종이 사전의 본질적인 인쇄 공간의 제한을 해소시킨 전자 사전/다매체 사전 개발의 전망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례 선별의 원칙과 섬세한 방법론은 여전히 필요하고, 한국의 사전학적 성찰은 이 부분이 매우 미진한 듯하다.¹⁹⁾

새로운 한국 대사전의 구축을 염두에 둔 우리의 기본적 제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

19) 한국어 사전의 용례에 대해, 한영균(2006),¹⁾과 같은 진지한 분석적 연구도 시작되었고 유현경·남길임(2008)에서도 한 장을 할애하여 교과서적 서술을 하고 있으나, 용례 문제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한국어 대사전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더욱 상세한 사전학적/언어학적 천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Martin(1989)외에도 프랑스어 사전을 사례로 용례 문제를 다룬 고전적 사전학 문헌인 Rey-Debove (제7장, 1971)와 Lehmann, A.(1995), Heinz(2005) 등이 참고가 될 것이다.

20) 상세한 논의는 추후의 기회로 미룬다.

ㄱ) 증거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표제항에 용례를 인용한다.

ㄴ) 용례의 출처와 유형은 표제항의 범주에 따라 적절히 선택한다.

ㄷ) 명시적/암묵적 예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풍부하고 다양하게 용례를 인용하되, 우선 구체적 선별의 방법과 지침이 역시 표제항의 세분된 범주에 따라, 주요 표제항의 경우는 그 개별 어휘의 성격에 따라 세밀하게 고안되어야 한다.²¹⁾

이러한 방법론적 원칙을 적용할 때, 기간 사전의 용례 인용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 -용례의 과부족, 정보성이 미약한 용례의 중복적, 잉여적 인용, 일관성, 체계성이 결여된 인용 등등-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고품질의 코퍼스 활용이나 전산 기술에 의한 인용 공간의 획기적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²²⁾

우리는 90년대 이후 한국어 사전 편찬계의 성취와, 그것을 위해 투입된 지적, 물질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또 하나의 한국어 대사사전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한국어 대사사전의 구성을 위한 몇 가지 개괄적인 제언을 피력해 보았다. 이와 같은 제안이²³⁾ 한국어 어휘부에 대한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사전편찬지향적 연구성과²⁴⁾와,

21) ㄷ)의 제안은 원론적인 것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제항의 다양한 어휘적 속성에 대한 정밀한 언어학적 분석이 전제된다.

22) 기존 한국어 사전 편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세세한 제안 사항도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소개는 다른 기회에 해보기로 한다. 21세기 세종 전자사전 개발에는 일부 적용을 시도해 본 바가 있다(국립국어원 2006).

23) 물론 여기에는 지면관계상 언급 못 한 몇 가지 사전학적 관점의 제안이 첨가되어야 한다.

24) 우리는 근래의 프랑스 사전학계에서의 논의에 따라 사전 관련 연구 영역을 다음과 같이 삼분하는 제언을 채택한다.

좀 더 과욕을 부린다면, 한국어 어휘부에 대한 단어부류/품사 유형론과 어휘 유형론 연구 성과에 뒷받침되고²⁵⁾, 더욱 정교화된 전산 처리 기술—특히 자연어 처리 시스템과 연동된 정치한 코퍼스 탐색 기술과 사전 텍스트 처리 기술(파싱과 검색)-의 개발·활용이 가능하다면,²⁶⁾ 우리는, 세계 사전학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우수한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대사전보다, 최소한 공시적 사전 기술의 측면에서는, 우수한 언어 대사전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²⁷⁾

-
- i) 산출된 출판물/책 —기본적으로 제조물과 텍스트의 양면을 지닌—으로서의 사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학제적인 학술 연구나 이론적 탐구를 다루는 사전학 *metalexigraphy*;
 - ii) 사전 편찬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휘 중심의 언어 연구와, 어휘 자원의 구축과 처리 연구 *lexicography*;
 - iii) 사전이라는 출판물 개발을 구체적 목표로 하는 실천적 여러 작업과 이에 필요한 지식·도구의 체계화로써의 사전편찬론.

25) 한국어 어휘 부류와 어휘부 내적 구성의 양상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를 통해 범언어적 변이 속에서의 한국어 어휘부의 특징이 잘 밝혀진다면, 언어학적으로 더욱 뜻있는 한국어 어휘부의 사전적 표상이 가능할 것이고 —예컨데 -적 파생어류와 같은 한국어에 특징적인 어휘 하위부류에 대한 기술—, 사전편찬 작업상의 문제 —예컨데 파생어/합성어 표제어의 선별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근거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26)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사전 텍스트 작성의 질적 수준을 용이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전 정보를 여러 수준에서 구조화, 조직화함에 있어 기성 사전이 보여주는 일관성, 통일성의 미비를 철저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7) 우리는 홍종선·최철호 외(2009)를 이 글의 작성 직후에 접하게 되어 유감스럽게도 이 문헌에서 서술된 여러 사항들과 자료를 참고할 수 없었다.

참고 문헌

- Hausmann, F. J. et al. eds.(1989-1991), Wörterbücher, Dictionaries, Dictionnaires. Encyclopédie internationale de lexicographie, 3 vol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Heinz, M. ed.(2005), L'exemple lexicographique dans les dictionnaires français contemporains, Tübingen: Max Niemeyer.
- Lehmann, A. ed.(1995), L'exemple dans le dictionnaire de langue, Langue française 106, Larousse.
- Martin, R.(1989), L'exemple lexicographique dans le dictionnaire monolingue. In Hausmann, F. J. et al. eds.
- Mel'čuk, I., et al.(1984-1999),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I-IV, 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Mel'čuk, I., Clas, A., et Polguère, A.(1995), Introduction à la lexicologie explicative et combinatoire, Louvain-la-Neuve: Duculot.
- Nielsen, S.(2009), Reviewing printed and electronic dictionari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In Nielsen and Tarp eds., Lexicography in the 21st century.
- Nielsen, S. and Tarp, S. eds.(2009), Lexicography in the 21st century, John Benjamins.
- Rey—Debove, J.(1971), Etude linguistique et sémiotique des dictionnaires du français contemporain, The Hague/Paris: Mouton.
-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2007),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
-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편찬보고회 발표자료(2009. 10. 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고석주(2003), '사전의 문법정보에 대하여', "언어 정보와 사전편찬", 12~13합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원.
- 국립국어원(2006),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 (2007), 21세기 세종 현대 한국어 전자사전(CD—Rom판).
- 김종철(2005), '한국어 사전 출판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전학회" 제 7회 학술대회 발표.
- 남기심 외(1987), 새한국어 대사전 편찬 방안,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 남기심·고석주(2003), '국내 사전 편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전학" 제1호, 한국사전학회.
- 남길임(2003), '「이다」의 용법과 사전기술', "한국사전학" 제 2호, 한국사전학회.
-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 (2009), '한국어 사전 편찬작업의 회고와 반성', "한국사전학" 제13호, 한국사전학회.
- 새국어생활(1998), 8-1, 사전편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국립국어연구원
- (2000), 10—2,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국립국어연구원
- 안상순(2005), '국어사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전학회 제 7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유현경·남길임(2008),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역락.
- 이병근(1990), '사전및 사전학',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선웅(2004), '명사구 사전의 통사정보 기술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제 4호, 한국사전학회.
- 이희자(2004), '사전편찬학1', "제 5회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강의자료".
- 조세수(2000), '문제점이 많은 표준 국어 대사전',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원.

- 표준국어 대사전 편찬지침 I, II(2000), 국립국어원.
- 하영동(2004), '프랑스언어대사전 TLF의 특징과 사전학적 의의', "한국 사전학" 제4호, 한국사전학회.
- 한국언어학회(1991), '사전학 특강', 여름연구회 강의교재.
- 한영균(2006ㄱ),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 -용언의 경우-', "국어학" 제48집.
- (2006ㄴ),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 -명사의 경우-', "어문 연구" 제34권 제4호.
- 허재영(2009), '국어사전 편찬 연구사', "한국사전학" 제13호, 한국사전학회.
- 홍재성(1987), '한국어 사전에서의 동사항목의 기술과 통사정보', "인문 과학" 제 57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 (1997), '제한된 동사활용형으로 구성된 관용표현', "새국어생활" 7-2, 국립국어연구원.
- (1998, '동사·형용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9-2, 국립국어연구원.
- (2008ㄱ), '「이다」의 사전적 기술을 위하여', 제13회 한국 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2008ㄴ), '2008년도판 삽화가 곁들여진 라루스 소사전', "개념과 소통" 창간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 외(1986), '사전학', "불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 · 박만규(2007), '새 한불사전의 편찬 원칙과 특징', "한국사전학" 제10호, 한국사전학회.
- · 박진호 외(2009), '유라시아 언어 및 지식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유라시아 제어의 전자사전 모델 설계-',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 홍종선·최호철 외(2009),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